(韓國造景學會誌, Vol.25,No.3 pp.186~198, 1997年 10月)

朝鮮時代 齋室空間의 立地 및 空間構成特性 分析

- 慶尙南·北道를 中心으로 -

이정 · 이현택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Location and the Spacial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Jaesil in Chosun Dynasty

Lee, Jeong · Lee, Hyun-Tae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lthough Jaesil are historical products which is related to our traditional culture, they have not been studied extensively. This study deals with the location and the spacial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Jaesil, a traditional building special funtions in culture. The summarized results are as follows:

① Jaesil were constructed in 15c~20c. Jaesil in Kyungpook province were built by the intelligent classes(士大夫階層) in 17c~18c, while Jaesil in Kyungnam province were built by the rich farmer classes(富農階層) with economic power in 19c~20c.

② The functions of Jaesil were the following: It was used for the purpose of worship(63.4%), school(25.4%), temple(7.0%). The main founction in Kyungpook province was worship(82.9%), while the main founctions in Kyungnam province were worship(44.4%) and school(44.4%).

③ The relationship between Jaesil and villages were as follows: Jaesil in Kyungpook were located in the mountains apart from villages and their main elements of landscape were valleys or rivers(71.4%). While Jaesil in Kyungnam was located in the residental spaces and their main elements of landscape were an artificial pond(27.8%) or no water landscape(28.2%).

④ The plane form of Jaesil, which was constructed specially 'The ㅁtype' of Jaesil

were common in Kyungpook province and this type expresses the enclosure and centrifugal force. While 'The ㅡtype and ㄴtype' were common in Kyungnam, and this types expresses the openness and practicality.

Ⅰ. 序 論

朝鮮時代는 儒敎가 통치이념 및 사회윤리의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儒敎의 가치관은 생활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까지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강력히 규제하며 뿌리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尹絲淳, 1983:219-233). 특히 祖上崇拜思想은 儒敎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개념으로 가족 구성원간의 인륜관계를 규정하고 나아가 祖上을 섬기는 행위와 孝라는 개념으로 집약된다. 儒敎에서 규정하는 孝는 생존하는 부모에게 국한하지 않고 死後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祭祀儀禮가 대표적이며 이는 결국 後孫들의 吉凶과 운명을 좌우하는 신앙이 되었다. 이러한 사상의 적극적인 實踐空間으로 4代 祖上까지 모시는 祠堂이라는 단순한 형태로 부터 넓게는 原始祖부터 5代 祖上을 모시는 齋室과 같은 造營的 空間形態로 나타났다(李王基外, 1988:147-156).

齋室空間은 조상에 대한 禮와 祭가 이루어진 祭祀空間과 거주인이 생활하는 住居空間이 함께 복합된 造營空間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始祖墓가 있는 곳에 墓祭를 지내기 위해 음식을 장만하고 祭官들의 宿食 및 門中會議 등을 위해서 지어진 공간이지만[1], 넓은 의미로서는 儒生들의 書齋 혹은 書堂의 講學機能과 民村에서는 공동사랑방으로서 외부손님의 接客機能을 가진 곳도 齋室이라 하였으며(東亞世界百科辭典, 1992:296) 지방에 따라 齋, 齋舍, 齋室 등으로 칭하고 齋室이 위치한 마을이름을 '재궁마을' 또는 '재궁몯'으로 불리고 있다.

齋室은 대내적으로는 後孫 또는 門中간의 공동체가 결합하는 장소로서, 대외적으로는 자기 문중을 과시하는 상징으로 인식되며 書院, 鄕校 등과 함께 대표적인 儒敎 建築物로 중요성을 지니나 관심과 이해부족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으며 타건축물보다 빠른 造營時期[2]와 높은 數的분포[3]에도 불구하고 현황실태 및 기능의 유형화 등 기초조사 조차 미비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齋室에 관련된 연구는 건축학과 지리학 분야에 국한되어 일부 다루어져 왔으며 특히 金東仁(1986, 1993)에 의하여 설립배경, 樓와 墓의 관련성, 건축물의 기능 및 용도 등 구조적인 특징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이 있었으며, 李王基 등(1988)은 안동지방 3곳을 대상으로 입지배경, 공간성격 및 배치형태, 평면칸수, 기단의 유형 등 건축가적 입장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는 제축공간으로의 家廟(祠堂)와 관련성(朱雄英:1993, 柳洪烈:1980, 張哲秀:1990), 형성배경 및 발달과정(許興植:1986, 池斗煥:1990)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齋室은 風水地理的으로 明堂을 선호하는 墓所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는 까닭에 風光景勝이 뛰어나 곳을 擇地하므로 다양한 空間構成上의 諸特性과 함께, 자연의 美를 생활속으

1) 大漢化辭典, 諸橋轍次 著, 12卷, pp. 1091-1093.
齋 : ① ものいみする, ものいみ ② おこそか, うやまふ ③ いさぎよい ④ つつしむ ⑤ へや ⑥ 勉强するとこる
齋舍:齋戒する室, 齋屋にい同し, ものいみするいへ, 宋明帝敕材官爲起三間齋舍

2) 최초서원인 소수서원은 1537년 건립되었으나 齋室은 1400年代부터 출현되고 있으며 본 대상지의 경우, 경북 봉화에 위치한 무진장齋의 건립연도는 1480년이다.

3) 15c에 출현되기 시작한 齋室은 최근까지도 門中에 의해 창건 또는 복원되고 있으며,《密陽樓亭錄, 密陽文化院, 1984, pp. 578-609》에 의하면 경남 밀양의 경우 19c이전 건립된 齋室數는 26個所이며, 19c이후는 136個所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

로 끌여들이는 독특한 景觀特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家門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造景文化로서도 자리잡음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 硏究는 儒敎思想의 구체적 體驗空間이자 性理學的 生活樣式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조선시대 齋室空間을 대상으로 立地 및 空間構成特性을 파악하여 전통공간의 造營原理를 밝히고자 한다.

2. 硏究方法

1) 硏究對象地

연구대상지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한정하였다. 예로부터 경상도는 영남사림파의 요충지로 儒敎문화가 번성한 곳으로, 특히 경북지방은 14c이후 李滉의 주거지인 안동을 중심으로 정치적, 학문적 중심지이자 조선조 사대부가 가장 많았던 양반 특권계층으로서 위세를 떨쳤던 곳이며(朝鮮總督府, 1935:217), 경남지방은 金宗直의 고향인 밀양을 중심으로 양반문화가 활발한 지역으로 들 수 있다(嶺南總錄:1988).

본 분석의 대상지는 ①기록상 齋室이 처음 나타난 15c부터 서양문물의 유입에 따라 왜곡 또는 변형이 일어난 20c(1910年 以前)까지 설립된 곳 ②문화재로 지정된 곳(중요민속자료, 문화재자료, 유형문화재, 전통건축물, 지방민속자료, 지방문화재 등) ③순수墓祭를 위한 곳으로 현판명이 '齋' '齋舍' '齋室' 등으로 지정된 곳 ④ 建築年代가 비교적 확실하고, 原形이 잘 보존된 곳 등을 우선 선정하였다. 上記조건에 적합한 경북지방의 안동, 예천, 봉화[4]등을 중심으로 35개소, 경남지방의 밀양, 창령, 함양, 합천 등을 중심으로 36개소 총 71개소를 본 분석의 대상지로 최종선택하였다.

2) 調査方法

조사는 設問調査, 現地調査, 文獻調査 등으로 이루어졌다.

設問調査는 1995年 9月~1996年 1月에 걸쳐 소재지의 확인이 가능한 총 140개소 齋室에 대하여 현황실태, 설립목적, 기능, 역사적 배경, 墓와의 관계, 소유 문중과의 관계등 총 21개 항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본 연구 대상지에 적합한 71개소를 선별하였다.

現地調査는 현지를 답사하여 실측조사와 Interview조사로 구분하여 1996年 2月~8月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측조사는 기존 평면도가 작성된 경우는 현지와의 대조작업을, 평면도가 없는 경우는 평면을 작성하였으며, 또한 입지 및 공간구성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인문 및 자연환경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Interview조사는 소유주 또는 관련자(대부분 문중의 직계후손)를 면담하여 설문내용의 확인여부와 특기사항, 墓의 위치 등을 조사하였고, 마을 및 墓와의 관련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촬영 및 Sketch작업을 병행하였다.

文獻調査는 대상지 선정과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邑誌, 郡誌, 文化財關聯資料 등과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등 史料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 結果 및 考察

1) 立地의 特性

(1) 建立年代

齋室의 건립추세를 살펴본 결과, 15c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건립연대별로는 圖-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15c 1개소(1.4%), 16c 8개

4) 金東仁, 朝鮮時代 齋室建築의 配置와 平面類型에 관한 硏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 7-11.
:재실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가장 포괄적인 연구로서 경상북도내 24郡 총 154개소 중 기능이 유사한 堂, 祠, 庵, 祭廳, 樓, 종택, 精, 軒 등을 제외한 96個所를 분석하면 안동, 예천, 봉화군이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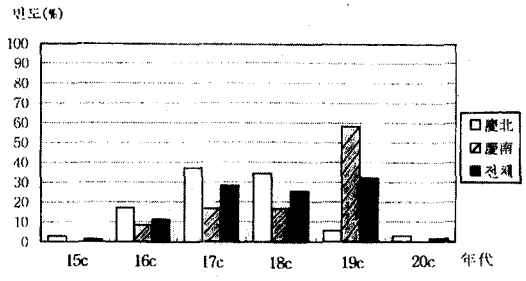


圖 - 1. 齋室의 건립연대

소(11.3%),17c 20개소(28.2%), 18c 18개소(25.4%), 19c 23개소(32.3%), 20c 1개소(1.4%)로 나타났다. 15~16c는 齋室건립이 크게 활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나 조선초기를 거쳐 17c에 이르기까지는 제례제도의 정착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북지방이 경남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나타났고 이는 14c이후 안동지방을 중심으로는 타지방에 비해 일찍이 유학자들과 官人이 나왔고 또한 고려후기부터 중앙에 진출한 권문세가 중심의 소수 양반가문에 한정되어 齋室설립이 이루어 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17~19c는 60개소(85.9%)의 건립빈도를 보이고 경상북도 77.0%, 경상남도 91.7%로서 이때가 齋室의 가장 활발하게 건립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적으로도 17~18c는 家廟설립을 법제화 한《朱子家禮》가 정착되는 시기이며[5], 嫡長子 상속제와 봉축제가 일반화되고, 정치적으로는 당쟁이 격화되는 시기로 黨爭의 긍극적 목적인 정권강화를 위해 이름난 선조를 내세워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에까지 宗家는 물론 실천기구인 祀宇, 齋室등의 건립이 보편화 되었으며 이들을 통해 동족의식의 구심점이 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7~18c는 齋室을 포함한 書院, 祠宇, 鄕校, 亭樓, 宗家등 다양한 유교문화들이 가장 활발했던 전성기로 書院·祠宇를 예를들면 이 시기에 전체의 약 82%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이호열,1993:375-403), 특히 경상도에서는 35.5%에 해당하는 數的 팽창을 보이고 특히 안동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북도의 書院·祠宇의 증가가 두드러진다[6].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17~18c에 25개소(71.4%)로 가장 높은 건립현황을 보이는 반면, 경상남도는 19c에 들어서 가장 높은 21개소(58.3%)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북지방은 일찍이 씨족마을이 형성되어 17~18c에 걸쳐 정착되고(전봉희,1992:33),《擇里志》에 안동을 비롯한 예안, 예천, 영주, 순흥 등 5읍에 退溪, 西厓의 문인과 자손들이 많고 사대부가 많으며 그 기색이 한양에 비길 만하다고 언급된 것처럼(李重煥,1994:62-63) 안동일대를 중심으로는 기존의 세력기반을 토대로 영남사림파의 세력이 집중된 곳으로 타지방 보다 일찍이 유교적 규범화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실천공간인 齋室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남지방은 같은 영남학파에 속하나 권력지향적이고 규범적인 경북과는 달리 유학적 성향은 은둔적이고 서민적이였으며 따라서 書院이나 鄕校 등 관련 유교건축도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고(김봉렬,1993:100-103), 이와같은 맥락에서 齋室도 크게 발전하지 못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日本과 가장 인접함에 따라 壬辰倭亂(1593年)의 피해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지역으로 국토의 초토화와 더불어 사회적 불안속에서 齋室의 소실 또는 전소 등의 가능성을 전제로 할때 17~18c에는 齋室건립이 경북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1623年 〈朱子家禮〉를 해석한 申提의 〈家禮總解〉가 나왔다.

6) 鄭萬祚, 17-18c의 書院, 祠宇에 관한 試論, 한국사론, 1975, pp 211-280. :숙종대(1674-1723)에는 한道에 80-90개소의 서원이 있었고, 광해군~정조대에는 724개소가 있었다. 경상도의 경우에는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시에도 존속이 허용된 사액서원 47개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14개소(29.8%)가 허용되었다.

한편 19c에 들어서 齋室건립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는 18c 이후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宗法질서가 무너지고 신분제도 붕괴되면서 實學을 바탕으로 한 농민경제의 변화로 부농계층이 증가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가문의 과시 및 신분상승의 수단으로써 齋室건립이 크게 요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하나의 예로 일제시대에 실시된 四方博에 의한 인구통계에서 숙종~철종에 이르는 조선후기 168年 동안 兩班層은 약 7배가 늘어난데 반해 常民層은 1.6배, 奴婢層은 25배로 각각 줄어들고 있음을 들 수 있다(金錫亨,1993:143-157).

이와같이 18c이후 양반층의 급격한 증가는 농업경영에 따른 변화를 가장 큰 요인으로 들 수 있는데(안병태:1975, 손정목:1980), 특히 경북에 비해 유교적 규범이 비교적 약하고 부농계층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김봉렬:1993) 경남지방에 있어서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齋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19c 이후 유교건축의 증가는 書院과 祠宇의 경우에서도 大阮君의 書院撤廢領(1868)으로 일시 감소하나 書院撤廢領 이후 20c 중반까지 書院.祠宇의 신설이 어느 시기 보다도 급격히 늘어났고(李炫石,1993:190-213), 이러한 원인으로 개인 또는 문중의 재력에 따른 과시와 또한 국가에 의한 書院許可制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20c는 사례대상지에 국한시켜 볼때 경북지방의 1개소만 나타나고 있어 이는 齋室의 정리기로 볼 수있는 시기이며 이때는 日本에 의한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민족적 전통성이 상실되고 따라서 齋室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쇠퇴기를 맞으며 전통공간의 훼손과 변형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복을 기점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일부 가문이나 후손들에 의해 앞다투어 건립하는 추세에 있으며, 한예로《密陽樓亭錄,1984:579-609》에 의하면 현존하는 총 168개의 齋室중 1910년 이전은 32개소(19%)에 불과하고 191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새로이 건립된 것은 136개소(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분석범위를 일제시대 이전(1910年)으로 국한시켜 언급한 것으로 이상과 같은 齋室건립의 추이를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表-1)과 같이 15~16c를 태동기로, 17~19c까지를 성숙기로, 20c 이후를 정리기로 3단계 변화과정을 거치며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 1. 齋室의 시대별 건립단계

단계 / 시대	태동기		성숙기			정리기
			1차 발달기		2차 발달기	
	15c	16c	17c	18c	19c	20c

(2) 건립초기의 機能

齋室이란 원래 墓祭를 위한 제반시설을 준비하는 곳으로 알려져 왔으나 (圖-2)와 같이 지방과 문중에 따라 墓祭機能 이외의 다양한 제기능들을 함께 수행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건립시 초기기능을 살펴보면 墓祭 63.4%, 書堂 25.4%, 寺刹 7.0%, 會館 2.8%, 祠堂 1.4% 등으로 나타나 墓祭機能이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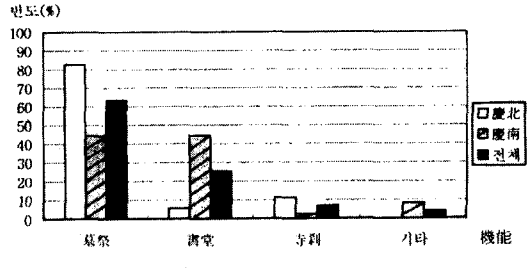


圖 - 2. 齋室의 機能

특히 경북지방에서는 전체의 82.9%가 '墓祭기능'으로 나타나 안동을 중심으로 성리학적 규범이 엄격하게 이루어진 사대부 양반계층의 중심지였음을 확인시켜 주고있다. 반면, 경남지방은 '墓祭機能' 44.4% 이외에 '書堂機能'도 44.4%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민적인 유교적 성향과 19c이후 부농층의 급격한 齋室건립의 추세와 관련지어 볼때 경남지방에 있어서 墓祭 기능과 더불어 일반 鄕村民들을 대상으로 하는 書堂機能이 함께 강조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은 재실의 건립초기기능에서 서당기능의 분포는 묘재를 위한 기능에서 서당기능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건립초기의 순수한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원래 개인의 서당 기능을 가진 공간에 후대에 내려오면서 묘제를 위한 재실 기능이 부가된 것이다. 예를들어 경남 유형문화재 제234호인 龜陰齋는 소요당 윤언례 선생이 후학들과의 강학을 목적으로 선조7년(1575)에 건립한 서당으로 후대에 묘제를 위한 재실로 기능이 바뀌었다. 이외에도 산청군의 崇義齋는 1800代 건립된 여흥민씨 齋室로 崇義齋와 大浦書堂의 堂號가 함께 나타나며, 창령군의 蘇谷齋는 蘇谷書堂과 望道齋는 求尼書院과 함께 현판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 경남지방의 많은 齋室들이 書堂과 齋室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려시대까지 寺刹이였던 것이 조선시 대로 넘어와 齋室化된 경우도 전체 5개소(7.0%)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齋室의 형성배경이 초기 寺刹에서 이루어졌고(朱雄英,1993:133, 許興植,1989:522-548) 이것이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국가적으로 불교를 억제하고 寺刹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齋室化된 것으로 보인다. 예로 안동의 '崇室齋'(河回柳氏齋室)경우(慶尙北道文化財修理報告書:1992) 上樑門에 『…齋舍初各爲 陵孝寺 嘉靖三十七年 戊年重修天啓二年壬戌復重修列書…』으로 陵孝寺란 寺刹이었다가 나중에 齋室로 고쳐 사용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당시 세력있는 양반들은 寺刹을 침탈하여 토지와 노비를 점유함은 물론 그곳을 齋室로 삼고 승려를 거주시켜 墓所와 齋室을 관리토록 한 것이다.[7] 이러한 현상은 경북지방이 경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신라의 도읍이 있던 곳 으로 자연히 불교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表-2)와 같이 齋室의 초기기능은 건립연대간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경북지방의 경우 제례제도의 정착화가 이루어진 17~18c에 순수묘제의 기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경남지방의 경우는 부농계층의 증가와 종접질서가 완화되는 19c에 묘제기능과 더불어 서당기능이 함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表- 2. 재실의 건립연대와 초기기능간의 관련성

단위:개소

기능 / 위치	15c	16c	17c	18c	19c	20c	합 계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묘제	1/-	6/-	10/2	10/2	2/12	1/-	29/16
서당	-	-/3	2 /2	- /3	-/ 8	-	2 /16
사찰	-	-	1 /1	2 /-	-	-	4 / 1
생가	-	-	- /1	-	-/1	-	- / 2
사당	-	-	-	-	-	-	- / 1
합계	1/-	6/3	13/6	12/6	2/21	1/-	35/36

(3) 마을에서의 위치

마을에서 齋室의 위치는 (圖- 3)과 같이 초기에는 마을과 격리되었으나 後代로 내려올수록 점차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건립되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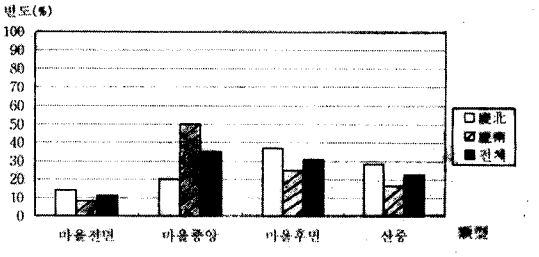


圖- 3 . 마을에서의 齋室위치

즉, 齋室의 태동기와 성숙기로 볼 수 있는 15~18c에는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마을後面(37.1%), 山中(28.6%), 마을中央(20.0%), 마을前面(14.3%) 순으로 비교적 마을 뒤나 격리된 곳에 齋室이 입지한 경우가 많고 특히 陰宅風水의 영향으로 明堂이라고 이름난 곳을

7) 《世宗實錄》卷 117, 29年 7月, 己亥 :諭開城府留守 外家驪興君 閔 墳墓願刹北神寺頹圮僧人不得萬居 無以禁火 今聽戶曹參判 閔伸之言 近地方廢 寺仕村瓦 撤取轉輸以給…

찾아 택지를 잡는 墓와의 관련하에 齋室도 마을후면이나 마을과 격리된 山中에 입지하면서 마을과의 관련성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고 소위 '墓下의 齋室'이라는 심리적 상징성이 齋室의 위치선정에 크게 강조되어 나타난다.

19c이후에는 齋室은 점차 마을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마을중앙이나 마을전면에 위치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8c이후 농업을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후손이 생기면서 齋室도 농경지가 위치한 주거지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하게 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血族만의 폐쇄적인 성격에서 마을내 모임의 중심지인 회관이나 書堂의 講學역할이 크게 강조된 개방적 성격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위치성의 변화는 초기 齋室이 갖는 위계성, 상징성의 강조에서 벗어나 개방성과 실용성으로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는 씨족마을내 관련조영물인 宗家(趙重根,1992:48-49) 및 호남지방의 書堂및 精舍(金銀重 · 朱南哲,1991:91-99)등의 입지변화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마을중앙의 입지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마을후면(25.0%), 산중(16.7%), 마을전면(8.3%)순으로 비교적 주거지에 인접한 곳에 齋室이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表-3)과 같이 齋室이 마을에서 가지는 위치성과 건립연대간에도 상호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성리학적 규범이 엄격하던 17~18c 를 중심으로 경북지방은 산중이나 마을후면부에 입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 경제적 요인등으로 인해 성리학적 규범화의 완화를 보이는 19c 이후의 경남지방은 마을전면이나 중앙부등 주거지 가까이에 입지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제축공간의 상징성 확보를 위한 마을후변부의 입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表-4)와 같이 齋室이 마을에서 가지는 위치성과 초기기능간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마을중앙에 위치한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경남지방의 경우는 서당기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마을후면(10個所)이나 山中(9個所)등에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경북지방의 경우는 墓祭기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表-3. 재실의 건립연대와 마을에서의 위치간의 관련성

단위: 개소

기능 / 위치	15c	16c	17c	18c	19c	20c	합계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마을전면	-	-/-	3/-	1/-	-/8	1/-	5/8
마을중앙	-	2/2	3/4	2/3	-/5	-	7/14
마을후면	-	2/-	4/1	5/2	2/7	-	13/9
산중	1/-	2/1	3/1	4/1	-/3	-	10/5
합계	1/-	6/3	13/6	12/6	2/21	1/-	35/36

表- 4. 재실이 마을에서 가지는 위치와 건립초기기능간의 관련성

단위: 개소

기능 / 위치	묘재	서당	사찰	생가	사당	합계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마을전면	5 / 5	- / 3	- / -	- / -	- / -	5 / 8
마을중앙	5 / 5	1 / **6**	1 / 1	- / 2	- / -	7 / 14
마을후면	**10** / 6	1 / 3	2 / -	- / -		13 / 9
산 중	**9** / -	- / 4	1 / -	- / -	- / 1	10 / 5
합 계	29 / 16	2 / 16	4 / 1	- / 2	- / 1	35 / 36

(4) 齋室의 입지형태

예로부터 東方禮儀之國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는 조상에 대한 孝를 가장 큰 미덕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조상의 墓자리가 後代의 盛衰를 좌우한다는 風水地理說과 儒敎慣習에 의해 明堂을 선호하였다. 風水는 인간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관여하는 陽宅과 죽은 후에 墓地를 보는 陰宅으로 나뉘나 陰宅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村山智順,1991:1). 이에따라 墓所를 관리하고 墓祭를 지내는 齋室의 입지형태를 살펴보면 (圖-4)와 같이 平地型, 丘陵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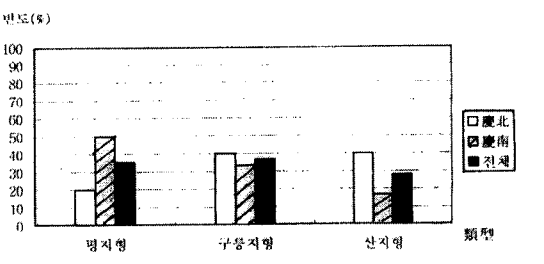


圖- 4. 齋室의 입지형태

型, 山地型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경북지방은 구릉지형(40.0%), 산지형(40.0%)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안동, 예천, 봉화 등은 태백산맥에 의해 둘러싸인 높고 험준한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요인을 들 수 있으며, 또한 (表-5)에서와 같이 입지형태와 초기기능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墓 가까운 곳에 齋室을 입지하며 순수墓祭의 기능을 강조함으로 인해 자연히 마을과 격리된 山中에 조영되거나 또는 상징성과 위계성을 가장 강하게 얻는 마을후면의 구릉지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表- 5. 재실의 입지형태와 초기기능간의 관련성

단위:개소

기능 / 입지형태	묘재	서당	사찰	생가	사당	합계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평지형	5/9	1/7	1/-	-/1	-	7/17
구릉지형	12/6	1/4	1/1	-/1	-	14/12
산지형	12/1	-/5	2/-	-	-/1	14/7
합계	29/16	2/16	4/1	-/2	-/1	35/36

반면 경남지방은 평지(50.0%)와 구릉지형(33.3%)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齋室의 초기기능에서 서당이나 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거지에 인접하게 건립됨으로 인해 평지형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墓祭의 기능으로 조상(神)의 영역에 따른 심리적 상징성 및 위계성을 높이기 위해 산지형의 입지형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물〔水〕의 有無와 形態

사상적 측면에서 볼때 특히 齋室이 가장 많은 번성기를 보이는 조선중기에는 풍수지리설에 의한 입지선정이 지배적 영향을 주었고 풍수의 조화는 山과 河川과 方位 세가지가 일치해야 비로서 가능하며 특히 가장 기본적인 취락입지로는 뒤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背山臨水를 들 수 있다(具美來,1992 :154-155). 특히 전통공간에서 물은 吉凶禍福의 중요한 지표로써 상징적인 의미로는 정화작용과 함께 식수및 농경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더욱이 조선시대 양반사대부 계층은 사대주의적 유교관에 입각하여 거주지를 찾아 마을을 형성하고 뛰어난 산세와 개울이 흐르는 경승지에 유교적 조영물들을 조영하여 학문을 수양하며 풍류의 장으로 이용한 것이다.

齋室공간의 경관요소로 물(水)의 有無와 形態에 따라 분류하면 (圖-5)와 같이 齋室주변에 계곡이나 강이 입접해 있는 流水型과 자연적인 水景觀이 없이 인공적으로 저수지나 못을 조성하여 水景觀으로 이용하는 止水型, 그리고 주변에 水景觀이 전혀 없는 無水型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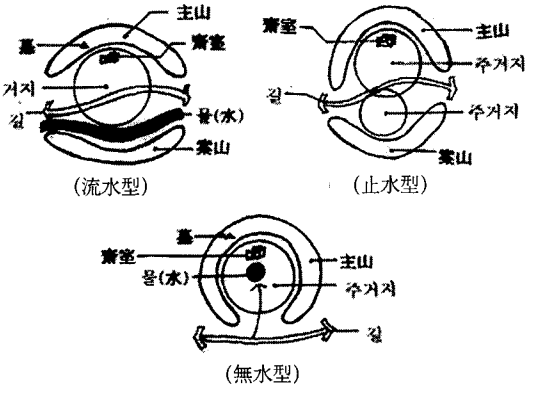


圖- 5. 물(水)의 有無 및 形態에 따른 類型

(表-6)에 나타난 바와같이 流水型은 전체의 39개소(5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특히 齋室이 墓와의 밀접한 관련하에 산등이에 墓가 위치하고 산정상에서 부터 흘러내리는 계곡이 齋室을 지나 주거지로 이어지는 자연형 계류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安東金氏齋舍, 西賢齋舍 등 산지에 위치한 경북지방의 齋室에서 71.4%의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 경남지방은 38.8%로 나타났다. 流水型을 다시 세분하면 齋室주변에 계곡이 있는 경우(慶北:安東金氏齋舍, 慶南:松溪齋 등)와, 맞은편에 계곡이 있는 경우(慶北:固城李氏齋舍, 慶南:晦陽齋등), 또한 주변에 큰 강이 있어 齋室의 水景觀으로 이용되는 경우(慶北:광산金氏齋舍, 慶南:東山齋-1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止水型은 齋室주변에 인공적인 못이나 저수지를 형성하여 水景觀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전체의 16.9%이며 이중 경북지방은 5.7%에 그치는 반면 경남지방은 27.8%로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齋室이 마을의 한가운데 입지해 있을 경우 자연형 계류의 水景觀보다는 인공적으로 저수지를 파거나 못을 조성하여 농수로로 이용하는 한편 齋室에서의 水景觀으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의 尙德齋가 이런 예로 齋室은 경사지에 위치에 있으며 中庭에서 언덕아래의 좌측편에 인공적인 저수지가 보이며 이를 水景觀으로 끌어들여 이용하고 있다(圖-6).

表 - 6. 물(水)의 有無 및 形態에 따른 類型

( ) : %

齋室類型		대 상 지	소계	합계
流水型	경북	영양남씨재사, 능동재사, 숭실재, 장태사, 홍해배씨재사, 안동김씨재사, 독실재사, 서현재사, 송석재사, 운천재사, 안동권씨재사3, 고성이씨재사, 영모재, 광산김씨재사, 순천김씨재사, 한천재, 우계이씨재사, 합천김씨재사, 하회류씨재사, 의성김씨재사, 청주정씨재사, 직산재, 함포재, 경주김씨재사	25 (71.4)	39 (54.9)
	경남	망도재, 석천재, 회양재, 영양재, 숭의재, 운계재, 송계재, 화산재, 영모재1, 경전재, 영향재, 동산재1*, 첨모재, 동산재2	14 (38.8)	
止水型	경북	소등재사, 태장재사*	2 (5.7)	12 (16.9)
	경남	저존재, 소곡재, 금호재, 경모재, 모원재, 숭덕재, 구음재, 상덕재, 필산재*, 경성재*	10 (27.8)	
無水型	경북	송파재사, 청석재사, 서지재사, 남홍재사, 추원재, 무진장재, 안동권씨재사4, 성산김씨재사	8 (22.9)	20 (28.2)
	경남	의첨재, 가양재, 영모재2, 가양재, 추원재, 화원재, 두방재, 영모재3, 래독재, 생림재, 벽화재, 국담재	12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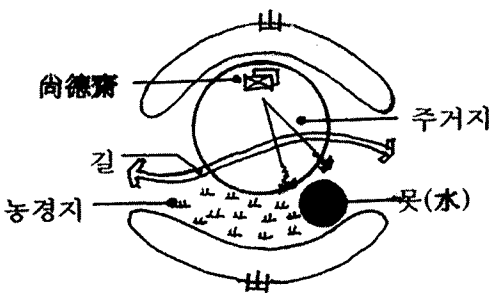


圖 - 6. 尙德齋와 주변 물(水)경관과의 관계

無水型으로 齋室주변에 水景觀을 전혀 볼 수 없는 경우로 전체의 28.2%에 해당하며 경북지 방은 22.9%로 追願齋, 南興齋舍 등이, 경남지방 은 33.4%로 永慕齋-3, 斗方齋 등에서 나타난다.

2) 空間構成의 特性

(1) 平面類型

齋室의 평면유형을 살펴보면 (圖-7)과 같이 나타났으며 특히 경북지방은 폐쇄적인 口字型이 전체의 71.5% (口字型:45.7%, 튼口字型11.5%, 日字型:14.3%)로, 경남지방은 二字型(42.5%), 一字型(19.4%) 순으로 비교적 개방적인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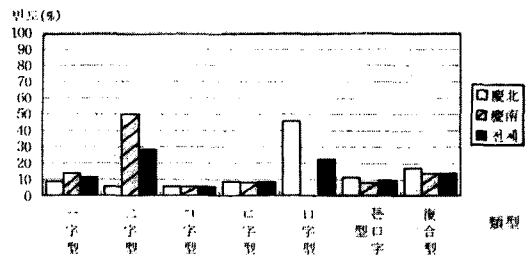


圖 - 7. 齋室의 平面類型

특히 17~18c에 걸쳐 경북지방은 口字型중심으로 발전, 변화되어 나타나는데, 口字型은 內部 指向的인 평면형태로 山地의 협소한 대지에 최대한의 복합적인 다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형태로 알려져 왔다(申榮勳, 1989:148-155). 이와같은 경북지방의 口字型 평면유형의 형성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기후및 지형적 측면에서는 내륙산악형에 따른 거친 외부환경으로의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지향적 주거형태이며, 사상적 측면에서도 이 지방 특유의 엄격한 유교적 성격이 갖는 절제성과 보수성 등이 재실형태

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8)]

반면 경남지역은 =字型, 一字型, ㄷ字型 등 비교적 개방적인 평면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18c말 이후 농업기술의 발달과 신분제의 폐지 등 사회적 변동의 요인에 따라 폐쇄적이며 규범적인 齋室이 개방적이며 실용적인 형태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후기의 영남 남부지방에서 나타나는 中·上流 住居의 平面類型(崔壹,1989:104-168)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表-7)과 같이 평면유형은 齋室의 건립연대와도 상호 관련성을 보이며, 경북지방은 성리학적 유교성향이 엄격했던 17~18c를 중심으로 제축공간의 폐쇄성이 쉽게 유지될 수 있는 口字型(16개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경남지방의 경우는 19c이후 개방적인 =字型(12개소)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이외에 一字型(4개소)도 나타나 성리학적 성향에 따른 지역간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圖-2)의 초기기능과의 관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경북지방은 순수 墓祭의 기능을 강조함으로 폐쇄성이 높게 요구되는 평면 유형이 요구되었을 것이며 경남지방은 순수 묘제 기능이외에 書堂이나 講堂 등 講學機能도 폭넓게 수행함에 따라 개방적인 형태의 평면유형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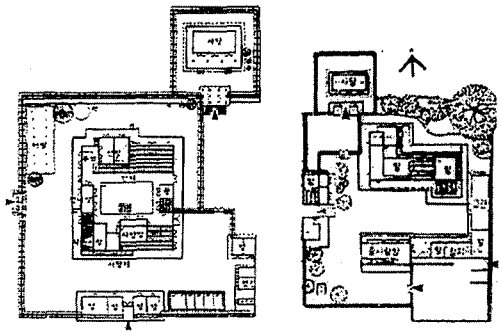
이러한 평면유형은 상류주거형태와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조선중기 이후의 中·上流住居(경북:138개소, 경남:77개소)의 마당구성을 중심으로 안채배치를 살펴보면 영남북부권은 전체의 89.1%(123개소)가 口字型 마당형식에 口字型 안채배치를 보이고 있었으며, 영남남부권은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된 別棟型 마당에 안채의 경우 90.9%(70개소)가 一字型(부속사를 제외)의 배치유형이 나타나고 있다(崔壹,1989:64-97, 趙重根, 1992:64-71). 이와같은 예를 (圖-8)과 같이 안동 토계동의 退溪宗家(경북지방민속자료 60호)와 密陽 校洞의 손병문氏 가옥(경남지방문화재 161호)에서 각각 볼 수 있다.

이와같이 齋室空間은 양반 사대부에 국한된 조영물로 제축공간과 동시에 생활공간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결국 齋室空間의 原

表 - 7. 齋室의 平面類型과 建立年代간의 관련성

단위: 개소

기능 / 유형	15c	16c	17c	18c	19c	20c	합 계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경북/남
一 字型	-	-	1 /1	2 /-	-/ 4	-	3 / 5
= 字型	-	1/2	- /1	- /3	-/12	1/-	2 /18
ㄱ字型	-	-	2 /-	- /1	-/ -	-	2 / 1
ㄷ字型	-	1/-	1 /-	1 /-	-/ 3	-	3 / 3
口字型	1/-	1/-	7 /-	7 /-	-	-	16/ -
튼口字型	-	2/1	1 /1	-	1/ 2	-	4 / 4
混合型	-	1/-	1 /3	2 /2	1/ -	-	5 / 5
합 계	1/-	6/3	13/6	12/6	2/21	1/-	35/36



(退溪 宗家) (손병문 가옥)

圖 - 8. 慶尙北·南道 의 上流住居類型

8) 張聖浚, 安東 土溪洞의 주거형태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2권 81호, 1978년, pp.4-9.
: 안동일대의 중·상류 주택으로 대표되는 口字型의 발생배경을 이 지방의 유교적 사고능력, 엄격한 도덕관 및 보수성 그리고 조선중기(1694) 이후 정권에서 물러난 영남 사림파들의 지위와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등이 지리 및 기후적 특성과 결합되어 도출되고 있을을 설명하고 있다.
趙重根, 조선시대 종가건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64,
: 안동을 중심으로 영남 북부지방의 종가건축에서 나타나는 口字型의 배경으로 이 지방 특유의 엄격한 유교적 성격이 주거형태에 반영된 결과로써 설명하고 있다.

形形態를 각각 양반 주거형태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住居와 齋室의 平面類型에 따른 유사성은 기후, 지형 및 문화적 요인의 공통점과 일상주거가 이루어진 생활공간이라는 기능성 및 양반 특정계층의 산물이라는 특수성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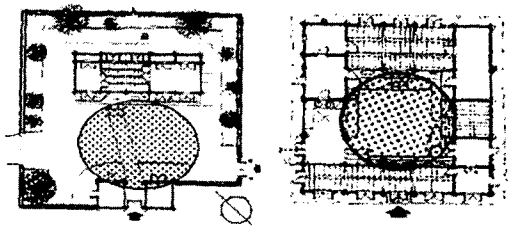
(2) 中庭空間 類型

齋室은 엄격한 의례적 공간임에 따라 상류주거공간 나타나는 마당의 기능적 분화 등은 요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大, 小 규모의 齋室을 짓고 따라서 中庭空間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의 85.9%(一, 二, 厂, 匚字型:37개소, 口튼, 口字型:24개소 총 61개소)는 中庭이 하나인 형태로 나타났고, 일부 큰경제력을 지녔던 가문에서는 中庭이 두개이상 되는(14.1%, 10개소)형태를 보이고 있다.

① 中庭空間이 하나인 경우

中庭이 하나인 경우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慶南地方 경우는 一, 二, 厂, 匚 字型 등의 평면형태에서 나타나며, 이들 齋室은 비교적 주거지내에 위치하여 일반인에게 쉽게 접근되며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도 書堂과 會館 등 다양한 제기능이 수행됨에 따라 中庭空間도 자연히 개방적인 형태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침해 등에 따른 방어로서 높은 담장을 둘러 中庭空間을 위요시키고 공간의 폐쇄감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경북지방의 경우는 口字型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외에 일부 튼口字型 등의 평면에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口字型 평면의 中庭마당은 주변건물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이고 지붕면이 하나로 연결되어 극히 폐쇄적이고 내부공간화 되어있다. (圖-9)는 中庭이 하나인 예로 二字型 平面의 慕遠齋와 口字型 平面의 西枝齋舍이다.



(二字型 平面:慶南 慕遠齋) (口字型 平面:慶北 西枝齋舍)

圖- 9. 中庭空間이 1개인 事例對象의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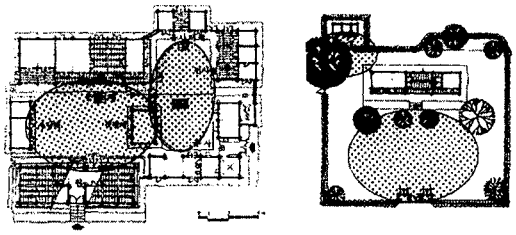
② 中庭空間이 두개인 경우

中庭이 두개인 齋室은 (圖-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口字型 平面을 기본형으로한 日字型 평면과, 일정한 기본형태가 없이 樓와 祠堂이 齋室과 함께 조영되어 나타나는 複合型 평면의 경우로 나누어 진다. 日字型 평면은 경북지방에 국한되어 비교적 규모가 큰 안동의 陵洞齋舍, 城谷齋舍, 台庄齋舍 등 3곳으로 이들은 墓祭를 관장하는 제축공간과 거주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日字型 평면의 中庭을 형성하는 齋室들은 모두 고려시대에 국가에 큰 공을 세워 安東의 豪長職을 세습하던 토착가문으로서 17c이래 계속 士族化의 길을 걸은 安東權氏, 安東金氏, 安東張氏의 始祖를 각각 모시고 있는 곳으로 李滉의 安東府三功臣廟(太師廟) 重修記[9]에 의하면 강력한 세도와 경제력을 기반으로 당시 그들의 위세는 실로 대단하였음을 보여준다.

複合型은 齋室에 樓가 별도로 독립되어 두개의 中庭空間을 형성하는 경우로 경북지방에 한하여 예천의 直山齋가 있으며, 주거공간이 제축공간과 분리되어 나타나는 경우로는 안동의 所等齋舍가 있다. 상기의 대상지는 모두 口字型을 기본으로 樓 또는 주거공

9) 《退溪集》, 李 滉, 卷 42
: 三姓子孫之在境內者, 張氏未聞焉, 金氏之冠於世者, 固多有之, 而惟權氏, 最爲聚衍, 名公巨鄕 奕世相望, 間亦有爲吏爲民, 間稱其苗 者, 其所以祝於府司, 而首吏之者, 自太師孫, 爲府吏之時始矣

간이 첨가된 형태이다. 또한 祠堂이 별도로 독립되어 2개의 中庭을 이루는 경우로는 慶南地方에 한하여 밀양의 菊潭齋, 石泉齋, 望道齋, 崇義齋, 東山齋-2 등이 있으며 이들은 二字型 평면배치를 기본형으로 齋室의 후면에 祠堂이 부속된 형태이다.



(日字型 平面:慶北 陵洞齋舍) (複合型 平面:慶南 菊淡齋)

圖-10. 中庭空間이 2개 이상인 事例對象의 平面圖

이상과 같이 中庭空間의 類型을 中庭數에 따라 살펴보면 (表-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表 - 8. 齋室 中庭空間의 類型

중정수 / 구분	1 개	2 개	
평면형태	ㅡ, ㄱ, ㄷ, ㅁ튼, ㅁ字型	日字型	複合型
건립연대	15c~19c	17c~18c	17c~19c
규모	中, 小	大	中, 大
진입방법	正門, 側面	樓下, 正門	正門
기능의형태	제향공간 + 생활공간 (복합형)	제향↔생활공간 (분리형)	제향+생활공간 (복합형)
공간폐쇄성	ㅡ, ㄱ, ㄷ字型:개방성 ㅁ字型, 튼ㅁ字型:폐쇄성	폐쇄성+개방성	폐쇄성
대상지	ㅡ, ㄱ, ㄷ字型:37個所 ㅁ字型, 튼ㅁ字型:24個所	3個所	7個所

4. 結 論

傳統空間의 造營特性을 파악하기 위해 原始祖이하 5代祖上까지를 모시는 祭祀空間이자 生活空間이 함께 이루어진 朝鮮時代 齋室空間을 대상으로 立地 및 空間構成特性을 分析한 결과 다음과 같다.

① 齋室의 造營時機는 15~16c 태동기, 17~19c 성숙기, 20c 이후를 정리기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특히 17-18c에는 경상북도의 士大夫 兩班階層을 중심으로, 19c이후에는 경남지방의 富農階層을 중심으로 활발히 조영되었다.

② 건립초기機能으로는 墓祭機能(63.4%)이 주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이외에도 書堂(25.4%)과 寺刹(7.0%)등의 순으로 제기능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慶北地方은 墓祭機能(82.9%)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유교적 제축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반면, 慶南地方은 墓祭機能 (44.4%)이외에 講學機能(44.4%)등도 높게 나타나 개방적인 공간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③ 齋室의 立地形態 및 마을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初期에는 住居地와 격리되어 山中에 주로 위치하다가 後期로 갈수록 주거지 근처의 平地에 건립되었으며, 특히 慶北地方은 '墓下의 齋室' 형태로 마을과 격리되어 산간지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경남지방은 마을 가까이에 齋室이 건립되고 평지형과 구릉지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④ 齋室주변의 물〔水〕경관과의 관련성은 流水型(54.9%)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특히 많은 齋室들이 山中에 입지한 경상북도의 경우 流水型(71.4%)이 높게 나타나 계곡이나 江이 주요 경관요소가 되고 있다. 반면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경남지방의 경우는 無水型 (28.2%)이나 인공적으로 저수지나 못을 조성하여 水景觀으로 이용한 止水型(27.8%) 등이 높게 나타났다.

⑤ 齋室의 平面類型은 慶北地方을 중심으로는 '口字型' 이 17~18c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영되고, 일부 규모가 큰 齋室에서는 日字型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평면유형은 강한 폐쇄성과 구심력을 잘 나타내는 형태로서 엄격한 성리학적 보수성의 표현과 이외에도 지리 및 기후적 특성과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慶南地方은 '二, =字型' 등 주로 개방적인 평면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9c 이후의 사회적 변동과 부농층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실용적이며

개방적인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⑥ 齋室의 中庭空間類型은 中庭數에 따라 一元的 형태(85.9%)와 二元的 형태(14.1%)로서 나누어지며 특히 二元的인 형태는 17~18c를 중심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齋室에서 나타나는 日字型平面과 樓 또는 祠堂 등이 첨가된 複合型 평면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朝鮮時代 齋室空間은 소위 兩班階層의 산물로서 鄕村 지배층의 유교적 성향과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立地 및 空間構成 등을 달리하고 있었으며 이는 時代的, 地域的인 차이를 가져다 주고 있는 배경이 되고있다. 결국 慶北地方은 건립초기인 15~18c에 士大夫 兩班階層을 중심으로 유교적 성향이 엄격히 실천되는 폐쇄적인 조영특성을 보이며, 반면 慶南地方는 19~20c에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富農階層 중심의 개방적이며 포영적인 造營特性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본연구는 慶尙南 · 北道에 국한되어 개략적인 특성을 살펴본 기초연구로써 추후 폭넓은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전반적인 이해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參 考 文 獻 〉

1) 具美來, 1992, 한국인의 상징세계, 教保文庫.
2) 金東仁, 1993, 조선시대 재실건축의 배치와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김봉렬, 1993, 부산, 경남의 전통건축을 위하여, 이상건축7, pp. 100-103.
4) 金錫亨, 1993, 朝鮮對建時代-農民의 階級構成, 새로서원.
5) 金銀重.朱南哲,1991,"湖南地方 書院 · 精舍類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Vol 17, No3, pp 91-99.
6) 金一眞 · 金東仁, 1988, "조선시대 재실건축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Vol 4, No 2, pp, 47-59.
7) 文化財管理局,1992, 慶尙北道文化財修理報告書.
8) 東亞世界百科辭典,1992, 東亞出版社..
9) 大漢化辭典, 諸橋轍次 著, 12卷.
10) 密陽樓亭錄, 1984, 密陽文化院.
11) 손정목, 1980, 조선후기 도시사회연구, 일지사.
12) 申榮勳, 1985, 한국의 살림집(上.下).
13) 《世宗實錄》卷 117, 29年 7月, 己亥年.
14) 안병태, 1975, 조선근대 경제사 연구, 평론사.
15) 李相潤, 1993, 조선시대 서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6) 李王基 外 2人, 1988, "안동지방 재실건축에 관한 연구(Ⅰ)", 대한건축학회지 Vol4, No1, pp, 147-156.
17) 李重煥(李翼成 譯), 1994, 擇里志, 을유문화사.
18) 李 滉, 《退溪集》, 卷 42.
19) 이호열, 1993, 경북의 전통건축을 형성한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이상건축7, pp.375-403.
20) 李炫石, 1993, "光州 · 全南의 書院, 祠宇 실태", 전라문화, 전라문화원, pp. 190-213.
21) 嶺南總錄, 1988, 영남아카데미.
22) 柳洪烈, 1980, 朝鮮祠廟發生에 관한 一考察, 韓國社會思想4, 一潮閣.
23) 尹絲淳, 1983, 조선조 禮思想의 연구, 동양학 13, pp. 219-223.
24) 張聖浚, 1978, 安東 土溪洞의 주거유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Vol 22, No 81, pp, 3-10.
25) 張哲秀, 1990, 祠堂의 歷史와 位置에 관한 硏究, 문화재연구소, pp. 5-50.
26) 趙重根, 1992, 朝鮮時代 宗家建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7) 朝鮮總督府, 1935, 朝鮮の聚落.
28) 전봉희, 1992,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9) 朱雄英, 1993, 麗末鮮初의 社會構造와 佛敎의 社會的 機能,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30) 池斗煥, 1990, 朝鮮前期 國家儀禮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31) 鄭萬祚, 1975, 17~18c의 書院, 祠宇에 관한 試論, 한국사론, pp. 211-280.
32) 許興植, 1986, 高麗佛敎史硏究, 一潮閣.
33) 崔 壹, 1989, 朝鮮中期이후 南部地方의 中 · 上流住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